

5월 첫 주말 도심 문화축제에 빠지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3'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최현혜기자 choi@

내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플래시 몼·버스킹·록밴드

문화전당 '음빛고을거리'

힙합·어쿠스틱 등 공연

5~6일 ACC '하우-펀'

대인예술시장 창극단 무대

남광주 야시장도 개장

장경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5월 첫째 주 주말, 광주가 축제 분위기에 빠진다. 오는 6일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매주 토요일 금남로 일원)이 5월을 맞이해 '인권·자유·평화'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달은 각각의 가치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마임 퍼포먼스 '5·18시민군상'과 '빛의 군상'이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상처럼 서 있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같이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인권'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플래시몹', '엄마가 달린다'를 진행한다. '학교폭력·가정폭력·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을 비롯해 '플래시 몼', '버스킹'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인권'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자유' 프로그램 '열정의 버스킹 시리즈'는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나포'가 이끈다. 시민들과 함께 짬뽕 악기를 즉흥 연주하

면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연을 기획했다. 또 록밴드 '차가운 체리', '위플레이'가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5·18희생자를 기리는 '5·18시계탑촛불'과 '5·18희망주먹밥' 등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상설음악회-오월의 노래'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601-4914.

같은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에서 펼쳐지는 '음빛고을거리'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힙합, 어쿠스틱,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사한다.

첫 무대는 어쿠스틱 밴드 '필링 셀러'가 나선다. 가수 선미의 '보름달', 국카스텐의 'gavial', 블랙핑크의 '불장난' 등을 자신만의 버전으로 들려준다.

이어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는 랩퍼 이석, 1인 블루스밴드 '김겨봉', 어쿠스틱밴드

'크레파스' 공연이 이어진다. 그밖에 흑인문화를 추구하며 지역에서 힙합 작업을 하고 있는 'Sneeze'(김용수), 7080가요부터 최신 아이돌 음악까지 편곡해 들려주는 '그루밍 어쿠스틱' 등을 만날 수 있다.

아간에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열리는 'HOW FUN-NIGHT' 행사가 대표적이다.

5~6일 오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유명 밴드 공연이 이어진다. 5일에는 불빨간 사춘기·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브로콜리너마저, 6일에는 프롬·신현희와 김루트·김반장과 워디시티·솔탄오버더디스크가 나선다.

'HOW FUN-NIGHT'는 ACC 대표 축제 'HOW FUN3' 연계행사로 7일까지 열리며 플라멩코와 푸드트러도 운영한다. 'HOW FUN3'는 5일 어린이날 기념식, 흠소리청소년연희단의 길놀이 공연 등 공식 개막식을 연다. 문의 062-601-4363.

대인예술야시장은 '소풍'을 주제로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장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거리공연 '유별난 극장'에서는 창극단 '소리치다', 클래식팀 '트럼펫콰이어' 공연을 비롯해 '판타스틱 미스테인' 밴드와 스페리온 이주노동자들의 합동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움서감서 체험장에서는 염서에 가족 편지쓰기, 카네이션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33-1420.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남광주밤기차야시장도 5~6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린다. 토요일 오후 7시부터는 페이스페인팅, 일회용 타투체험 행사를 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음빛고을거리' 행사가 6일에도 찾아온다. 여성그룹 '미켈' 공연 모습.

'남쪽 바다를 꿈꾸다'...우미경 개인전

고흥 남포미술관 21일까지

점점 햇볕이 뜨거워지는 5월, 푸르른 파도가 시원함을 선사하는 전시가 열린다. 우미경 작가가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21일까지 '남쪽 바다를 꿈꾸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상회화 '바다' 시리즈, 추상화 'Composition' 시리즈 등 신작 40여 점을 선보인다.

여수에서 태어난 우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을 여러 번 칠해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흥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바다' 시리즈는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한 바다를 보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잔물결이 이는 푸른 바다부터 석양빛으로 물든 바다까지, 섬이나 배 없이 오직 바다만을 그렸다.

또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전시한다. 동백이 흐드러지게 핀 오동도와 진달래가 풍성한 영취산을 캔버스에 옮겨 화려한 색채 향연을 보여준다.

그밖에 'Composition'은 다양한 풍경들을 색·면으로 단순화해 마음 속 느낌을 강조했다.

우씨는 서울 인사아트센터, 예술의전당,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29회와 다수 기획·단체전을 가졌다. 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그리움이 닿는 곳에'

국립나주박물관 29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국립나주박물관이 오는 29일 오후 2~4시 '제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박물관 1·2 전시실과 중앙홀에서 진행되며, 전남과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8~13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주제는 행사 당일에 공개된다. 참가자들은 주제에 맞춰 마한시대를 중심으로 한 연상감 유역의 역사·문화·살 등을 박물관 전시품과 상상력을 담아 자

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단체(학교) 250명, 개인 50명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단체는 담당 교사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FAX (061-333-9872) 또는 E-mail(ej02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8·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는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오는 8일과 12일 오후 3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운영방향',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이해', '성인지 관점으로 소셜 워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성의 안전' 이슈를 고려, 장미현 박사(젠더 공간 연구소)가 '시설 및 공간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강의한다. 도시 공간에서의 '성별 요구 및 성별 특성'과 '사회문화적 젠더 관계의 개선' 등 젠더 이슈를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이다. 문의 062-670-05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